

## 과학 논문에서의 표절 사례

Eun Hee Cho\*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Chosun Univeristy, Gwangju 501-759, Korea

\*Corresponding author: ehcho@chosun.ac.kr

연구 논문에서의 날조, 변조, 표절은 나라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증대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나라에서 처음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날조와 변조'는 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분석하는 자연계열 연구 논문에서, '표절'은 주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인문계열 연구 논문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몇몇 연구기관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부정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는 달리 과학 논문에서 오히려 표절 혐의가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의도적으로 표절한 경우보다 (물론 이런 사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논문 작성법이나 인용법, 표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실수로 인해 표절 혐의를 받거나 표절로 판정된 사례들이 많았다. 과학 연구자 교육에서 올바른 논문작성법, 인용법, 표절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표절을 정의한다. 과학 논문에서의 표절 혐의가 빈번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저자가 데이터만 새로운 것을 얻었다면 다른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CrossCheck과 같은 표절검색도구를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학술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고려할 때, 표절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치기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작성하려는 노력과 훈련이 요구된다. 결국 연구자에게 중요한 것은 논문 작성법을 숙지하고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이렇게 한다면 굳이 표절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일반적인 표절의 형태를 살펴본 다음 최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과학 논문 표절 사례를 중심으로 좋은 논문쓰기에 대한 생각을 다듬어 보고자 한다.